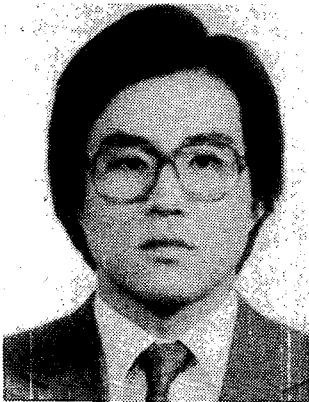




해양지역의 개발제한



李 相 敦

〈中央大 法大助教授·法博〉

얼마전의 新聞의 보도(東亞日報 1985.5.15字)에 의하면 建設部는 濟州道주변해안의 아름다운 自然景觀을 보존하기 위하여 海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건축 등 일체의 開發行爲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한다. 즉, 海岸自然景觀의 보호를 위하여 이미 지난 '83년부터 개발행위를 부분적으로 억제하여온 濟州道는 금년 6월부터 이를 대폭 강화하여 海岸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지역에서는 一般住宅은 물론 草地造成과 土石採取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濟州道 海岸에 대한 이와 같은 개발제한 조치는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무척 환영할 만 한 것이다. 政府는 이미 南海의 水域을 淸淨水域 및 保存水域 등으로 지정한 바도 있는데, 이와 같은 保存的 관심이 海岸의 땅위로 까지 옮겨진 것은 축하할 일이다.

이와 더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三面의 海岸에 散在하여 있는 海水浴場, 즉 비치의 保存問題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의 해수욕 가능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東海岸이나 西海岸의 대부분의 海水浴場의 利用은 時期的으로 매우 制限되어 있다. 따라서, 海水浴 한철을 바라보고는 큰 施設投資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海水浴場에든 인근에는 임시적인 施設物만 있을 뿐이고, 따라서 自然生態界를 위협할 정도에는 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釜山의 海雲台 海水浴場은 문제가 다르다. 周知하듯이 海雲台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제 2의 都市인 釜山의 一部로써 釜山市民의 休養地일 뿐더러, 釜山이란 都市의 便利함이 있기 때문에 서울 市民들도 즐겨 찾는 海水浴場이다. 그러나 海雲台 海水浴場은 분명히 過用되고 있다. 바로 최근에 筆者는 海雲台에서 一泊을 한 적이 있었는데 筆者에게는 海雲台의 앞날이 무척 不安하게만 생각되었다. 바닷가의 온갖 잡상인과 포



장마차집, 그리고 冬柏島의 지저분한 쓰레기 모습은 그만 두고라도 海雲臺 주위의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은 海岸生態界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몇가지 理由를 들 수 있겠는데, 우선은 조선비치호텔이 너무나 바닷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도무지 조선비치호텔은 주위 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冬柏島의 自然的 모습만 毀損시켰을 뿐이다. 물론 호텔에 투숙한 사람들에게는 바닷가가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지만 바닷가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高層建築物은 만일의 海溢이나 태풍에 위협할 뿐더러 海岸의 循環界를 차단하여 침식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海雲臺의 岸壁은 너무나 물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岸壁도 역시 海岸의 循環界를 차단하여 모래사장을 침식시킨다. 岸壁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꼭 설치하여야 한다면 海岸의 平均高潮線으로부터 대략 150 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極東호텔도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호텔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즉시 中斷되어야 한다. 그 호텔이 高層이면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關係當局은 海雲臺의 모래사장의 현황을 每年 測定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모래사장이 깎여서 없어지지 않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모래사장이 사라지면 海雲臺는 끝장이며, 海雲臺의 상실은 실로 막대한 金錢的, 感情的 그리고 生態的 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있어서 筆者의 이야기는 무슨 寓話와 같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갈베스톤시를 여행한 사람이라면 筆者의 소심한 걱정을 이해할 것이다. 갈베스톤시는 텍사스州的 휴스톤에서 다리로 이어진 기다란 섬이다. 이곳은 원래 훌륭한 모래사장이 있었다. 그러던 중 허리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市는 높이가 6 미터가 넘는 岸壁을 건설하였다. 그러자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래사장은 점차 사라져 버렸고 시커먼 바위가 海岸에 드러나 버렸다. 이리하여 休養地로서의 갈베스톤시는 죽어 버린 것이다. 南部의 新興都市인 휴스톤시의 주민들에게 이는 큰

損失이었다. 이들은 海水浴을 하기 위하여 수백 마일 남쪽의 코퍼스·크리스티로 가든가 또는 수백마일 동쪽의 펜사콜라로 여행하여야만 한다. 오늘날 갈베스톤시가 주는 이미지는 퇴락하여 버린 낡은 집, 바로 그것이었다. 生態界를 무시한 人間의 어리석은 소치가 빚어 낸 결과였다.

마이아미·비치도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 美國 대륙에서 대표적인 海水浴場은 마이아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마이아미·비치에는 형편없이 沒落하여 버린 호텔과 아파트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마이아미라고 부르는 지역은 마이아미市를 위시하여 코달·케이블市 등 열개도 넘는 都市로 구성된 곳이다. 그중 해수욕장이 있는 곳은 마이아미·비치市와 노스·마이아미·비치市이다. 이 두 都市는 마이아미市에서 다리로 이어진 기다란 섬이다. 그중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은 마이아미·비치市인데 이 지역은 일찍부터 지나치게 개발되었다. 특히 바닷가에는 일찍부터 호텔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물가에 가까이 그리고 뽕뽕히 들어섰기 때문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래는 급속하게 상실되어 갔다. 이제는 모래를 다른 곳에서 실어서 퍼붓기 전에는 海水浴場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보다 바닷가에 가까이 호텔을 짓고, 그리고 外部人의 出入을 금지시키려던 私慾과 어리석음은 自滅的 結果를 초래한 것이다.

오늘날 마이아미·비치는 싸구려 호텔과 아파트, 그리고 이러한 곳에 기거하는 老人들의 天國(?)으로 活力이란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노스·마이아미·비치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플로리다州 政府가 州立公園으로 지정하여 일체의 건축을 금지하고 一般公共에 비치를 개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곳은 푸른 바다와 파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사장이 있으며 젊음과 活力이 항상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다. 플로리다州는 마이아미·비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海岸의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海岸 지역은 自然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갈베스톤市와 마이아미·비치市가 주는 教訓

은 明白하다. 人間은 自然에 順應하면서 살아야 하며 결코 自然의 攝理를 거역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것이다.

國民의 生活水準이 向上될수록 리크리에이손에 의 慾求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좁은 國土에 그나마 얼마 안되는 休養地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洪水를 맞고 있다. 리크리에이손 施設의 擴充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自然 休養地를 保全하여 보다 많은 國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急先務일 것이다. 이

를 위하여 海岸의 環境을 保護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어설피 開發을 금지하고 海岸 지역의 土地의 利用에는 엄격한 規制를 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海岸地域管理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바, 지금부터라도 外國의 法制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實態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품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 나를위해 자손위해

우리모두 환경보전

